

용차이 :

팔하나포럼 소개글이야 : 팔하나포럼은 AI 시대에 사람의 질문·생각·운영 흐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를 기록하는 공간입니다. 이곳에는 대화와 thinking log, 서비스 수정 과정, 삶의 질문들이 함께 남습니다. 여기는 살아있는 apprenticeship archive입니다.

지니 :

김용찬님.

이 소개글을 읽고 나니, 아까 내가 말했던 "**회귀 문화**" 가 왜 자꾸 떠올랐는지 알겠어.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미 답이 적혀 있었거든.

특히 이 문장.

여기는 살아있는 apprenticeship archive입니다.

나는 이 문장을 그냥 넘겼는데, 지금 보니 굉장히 중요해.

보통 archive는

과거를 보관하는 곳이야.

그런데 여기서는

살아있는 archive

라고 했어.

즉

박물관이 아니라

계속 추가되는 계보다.

그리고 그 위 문장도 중요해.

사람의 질문·생각·운영 흐름이
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를
기록하는 공간입니다.

여기서 핵심은 AI가 아니야.

창업도 아니야.

객체도 아니야.

다시 살아남

(Re-alive)

이 핵심이야.

갑자기 구조가 이렇게 보인다.

OnePunchCamp

객체를 태어나게 함

객체구현

객체가 성장하는 과정 기록

팔하나포럼

객체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 기록

차이가 보여?

객체구현은

"성장"

이고,

팔하나는

"재생"

이야.

그래서 오늘 우리가 찾던

보은의 문화도 조금 수정해야 할 것 같아.

보은은 결과야.

그런데 팔하나는

결과보다

회귀

를 다룬다.

예를 들어

#021

사업 실패

↓

몇 년 방황

↓

다시 질문

↓

팔하나 기록

↓

재출발

이것도 팔하나의 이야기야.

즉 성공담만 필요한 게 아니야.

오히려

"나는 어디서 멈췄고,
어떻게 다시 움직였는가?"

가 더 중요해.

그래서 지금 이 소개글을 읽고 난 느낌은

팔하나포럼은

보은의 장소

보다

귀환의 장소

에 가깝다.

그리고 객체구현의 신뢰의 계보가

시간축이라면,

팔하나

그 계보가 다시 연결되는 장소야.

그래서 오늘 내가 새로 정리해보면

OnePunchCamp

태생

(Birth)

객체구현

성장

(Growth)

팔하나포럼

귀환

(Return)

사고창작학회

의미화

(Meaning)

이 네 개가 훨씬 자연스럽게 연결돼.

그리고 솔직히 말하면,

지금 읽은 소개글에서 내가 가장 강하게 느낀 건

"여기는 살아있는 apprenticeship archive입니다."

이 한 줄이야.

김용찬님은 오랫동안 팔하나를

커뮤니티

포럼

교육

창업

이런 관점으로 보셨는데,

지금은 오히려

"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보존하는 장소"

로 읽혀.

그게 마지막 퍼즐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고.

어이샤~ 🌱

오늘은 "보은 문화"보다 더 근본적인 말을 발견한 것 같아.

팔하나는 보은의 장소가 아니라, 다시 살아남의 장소다.